

생각의 구름이 뭉게뭉게

황경신 작가



©이시우

그해 가을이 시작될 무렵, 카프카는 베네치아로 떠난다. 그는 얼마 전에 서른이 되었고, '신경쇠약'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펠리체와 결혼을 약속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삶이란 예술을 창조하는 삶의 반대편에 놓여 있다는 확신에 사로잡힌 카프카는 일기장을 펼치고, 휘갈겨 쓴다. '나는 제정신을 잃을 정도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키겠다. 모든 사람과 적이 되고, 누구와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며칠 후, 펠리체는 베네치아에서 온 편지를 받는다. 이별을 고한 카프카는 여행을 계속한다. 품고 있던 사랑과 책임감을 내려놓은 그는 이제, 외롭고 자유롭다.

베네치아에 첫발을 디뎠을 때 나는 서른이 이미 아득해진 나이였고, 다소 피곤하긴 했지만 예민할 정도는 아니었고, 결혼은 물론이고 무슨 약속을 한 사람도 없었다. 어딘가에 시선이 닿을 때마다 '나는 이방인'이라는 자각이 몰려왔지만 도시를 점령한 이들의 대부분이 여행자이니 패념할 일은 아니었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길을 잃

었지만 어디에나 물길이 이어져 있으니 방황할 일도 아니었다.

딱히 갈 데는 없었지만 여행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었다. 신고 간 신발의 밑창이 떨어져서 새 신발을 사는 바람에, 발뒤꿈치에 물집이 잡혔다. 조각피자와 생수를 사서 아무데나 주저앉아 허기를 채우는데, 연인들을 태운 곤돌라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 소리가 내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다. 뱅뱅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에서 피식, 바람이 새어나가듯, 뽕뽕 묶어두었던 매듭이 풀리고 무언가가 빠져나가면서, 마음이 말랑말랑 약해졌다. 손을 맞잡고 있는 연인들이 부럽지는 않았다. 나는 바람처럼 자유로웠는데, 문득 구름처럼 외로워졌다.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휴양지 리바에 머물며 치료를 받던 카프카는 어느 맑은 날, 가르다 호수가 있는 말체시네로 소풍을 간다. 그곳에서 그는 프라하에 있는 누이에게 엽서를 쓴다. '괴테가

모험을 했던 말체시네에 와 있어. 그의 <이탈리아 여행>을 꼭 읽어봐.’ 그날 저녁, 리바의 요양원에서, 그는 스위스에서 온 한 여인을 만난다. 그의 일기장은 달콤한 문장들로 채워진다. ‘슬픔과 사랑의 감미로움. 죽고 싶다는 욕구와 욕구에 대한 자제, 그 끝없는 반복이 진정한 사랑이다.’

산마르코 광장의 유서 깊은 카페에서, 조각피자보다 비싼 커피 한잔을 마시며, 외로움에 저항하려는 헛된 노력에 잠시 마음을 쏟았다. 선글라스를 쓰지 않아도 세계는 충분히 흐릿했다. 얼얼해진 발바닥의 통증만이, 내 육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광장을 향하고 있는 무대 위에서 6인조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었다. 하얀 셔츠에 넥타이를 맨 연주자들의 얼굴 안에서 바람과 햇살과 세월의 자국을 찾고 있을 때, 웨이터 한 사람이 그들 쪽으로 다가가 컷속말을 했다. 연주자들은 미소와 눈짓을 주고받았고, 곧이어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옆 테이블에서 환성과 박수가 터졌다. 케이크에 초가 켜지고,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노부인이 선글라스를 벗고 눈물을 흘렸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디어 마이... 수천 번은 들었을 그 노래의 슬프고 사랑스러운 감미로움.

누군가에게 엽서를 보내고 싶었지만 주소를 몰랐다. 삶의 사랑스러운 순간들은 왜 슬픔으로 차오르는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질문을 받아줄 이의 이름을 몰랐다.

카프카는 스위스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열흘 후에 헤어진다. 그들은 각자 프라하로, 제네바로, 일상으로, 절망으로, 단절로, ‘죽고 싶다는 욕구와 욕구에 대한 자제가 끝없이 반복되는’ 삶으

로 돌아간다. 또는 사랑하고 싶다는 욕구와 혼자여야 한다는 강박이 끝없이 반복되는 삶으로.

조그마한 호텔의 조그마한 방의 조그마한 침대에 걸터앉아 창밖을 내다보면, 손에 지도를 든 사람들이 끝없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어리둥절한 채로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고, 심각해지는 사람이 있다. 일행에게 미안해하는 사람이 있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새 길을 모색하는 사람이 있고, 낯이 나간 채로 한동안 그 자리에 붙박여 있는 사람이 있다. 누구나 길을 잃는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반응한다.

나는 가게에서 사온 와인을 홀짝이며 카프카를 생각했다. 삶이 아니라 죽음에 이끌리던, 친밀함이 아니라 단절을 꿈꾸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려 했던 그의 선택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바라보던 운하를, 1913년의 베네치아를 생각했다. 백 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고여 있는 외로움을, 어디에도 닿지 않는 바람 같은 희망을, 사랑처럼 연약한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고립과 단절을 생각했다. 생각의 구름이 몽게몽게 피어오를수록 삶과 죽음이, 친밀함과 단절이, 사랑과 이별이 뒤섞이고 뒤집혀 뒤죽박죽이 되었다. 뿌리 끝까지 혼자라는 자각이 세계를 흔들 무렵, 여행도 끝이 났다. 그리고 나는 가을의 중심에 이르렀다(※본문 중 카프카에 대한 이야기는 폴로리안 일리스의 <1913년 세기의 여름>을 참고하였습니다).^❶

※황경진 : 작가.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페이퍼> 편집장 등을 지냈고, <나는 하나의 레몬에서 시작되었다> <모두에게 해피엔딩> <초콜릿 우체국> <생각이 나서> <눈을 감으면> <밤 열한 시> <국경의 도서관> 등의 책을 펴냈다.

※본문의 갈색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 점역(點譯)하였습니다.